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명지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연미희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young Ji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essor :Yeon Mi H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 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The sample were 119 children and their parents(mothers and fathers) of a kindergarten in Seoul.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the modified PM(Parental Modernity)bySchaefer and Edgerton and the modifie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cale by Korea Behavioral Science Institute. The data analyzed by frequency, mean, t-test, F-test, and Pearson's r.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mothers' parental attitude was related to the children's curiosity.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parental attitude and fathers' parental attitude according to their children's sex.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태어나서 성숙할 때까지 또는 다른 한편이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되는 가장 지속적인 인간관계이다. 또한 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유아의 지적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모자녀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더욱 밀접함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모두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그 기본틀이 형성되어서 사회속으로 나아간다. 이때 유아의 정서적 안정은 이후의 성격형성 및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모 자녀간의 밀접한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중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사회성원간의 협력하기, 나눠주기, 돋기 등 더불어 살기를 위한 긍정적인 특성의 발달을 강조하는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연구 가운데 유아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보고들이 많았다. 즉 유아의 사회성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고 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성, 책임성을 포함하는 사회성을 함양시키고, 어떤 상황속에서도 대처를 잘 하여 항상 명랑하고 자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성을 길러주는 것이 개인간의 대립보다는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양희, 1994). 자녀는 출생과 더불어 가족과 관계를 맺게 되며, 가정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 습관을 조성하는 기초적 훈련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때 여러 요인과 더불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성 형성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 그리하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왔다.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련된 것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련된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련

된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연숙, 1995; 오시내, 1991). 그러나 일부 연구(김숙경, 1989)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형제관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는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사회성 발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숙경, 1989).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확대가족의 유아들은 내적 통제력이 높고, 학가족의 유아들은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인숙, 1993).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부모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그 수가 적고 또한 일부 변인은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방면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책임성, 협력성,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과민성, 비협조성, 불안정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경, 1989; 김양희, 1994; 김진경, 1989; 박창희, 1977; 양연숙, 1995; 이영순, 1988; 한인자, 1988; Baumrind, 1978; Easterbrooks & Goldberg, 1984; Crnic et al, 1983; Kochanska, 1990).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요인과 함께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자녀에 대하여 칭찬, 격려 등의 강화를 많이 사용하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대체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특성 즉 유아의 사려성, 이타성 및 낮은 공격성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보다 관대하고 위로적이며 협동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Belsky, 1990).

그러나 일부 연구(김정숙, 1989)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연구대상인 부모가 어머니이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진경, 1989; 이영순, 1988)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어머니처럼 부모이면서도 부모자녀관계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유아교육기관 경험여부,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양연숙, 1995), 정서적 안정성도 높게 나타났다(이영순, 1988).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보다 여아가 사회성 발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양연숙, 1995; 오시내, 1991) 김숙경(198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시내(1991)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활동성, 협력성, 독립성에서 더 우세하였고,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성이 더 발달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호기심, 기쁨, 애정에 더 많이 반응하고 남아는 불안에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영순(1988)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안정성 영역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출생순위 및 형제자매유무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김숙경(1989)은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출생순위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 과민성, 불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양연숙, 1995).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방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에 따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독립성과 내적 통제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핵가족을 이루는 가정의 유아들이 보다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확대가족의 유아들은 내적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에 있어서는 김정숙(198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정서적 발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방인숙, 1993; 이영순, 1988). 즉 방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전체적인 사회 정서적 발달이 높게

나타났고, 이영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정숙(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학력이거나 저학력보다는 중·고 출신의 어머니들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생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이 있을 때 사회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1989).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여부 보다는 일의 종류나 일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Crockenberg & Litman, 1991; Easterbrooks & Goldberg, 1985; Hock & DeMeis, 1990). 그러나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유아의 독립성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취업모를 둔 유아는 또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부모나 어른에게 덜 의존적이고, 반응을 덜 보이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유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유아들 스스로 과업을 끝내기를 원하며 특히 취업모는 가능하면 빨리 집안일을 끝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작용하여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유아는 성장하면서 많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인중의 하나가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애정과 유아의 독립성 및 사회성을 격려하는 훈육이 적절하면 유아는 사회적 책임성과 독립적인 자율감을 갖게 되고, 또래에게 친절하고,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Clarke-Stewart, 198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asterbrooks와 Goldberg(1984)는 가족의 태도와 특성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민주적인 양육특성, 유아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제공, 그리고 유아와 함께 놀아주는 것 등이 유아의 문제 해결 행동과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연숙(199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와 사회성 발달의 각 하위영역간의 관계에서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이 높았다.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사회적 협력성, 과민성, 불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협력성은 낮고, 과민성과 불안정성이 높았다. 특히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양희(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과 관계가 있고,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종혜(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인 통제가 아닌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 부모에 대해 온정적으로 시각한 아동의 사회성은 높게 나타나 박창희(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숙경(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에 있어서 외동이와 형제아 둘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유아의 '사가중심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자율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성 발달은 외동이나 형제와 함께 성장하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자(198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중 책임성, 사교성, 자제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사회성 발달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숙(198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활동성, 안정성, 협력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유아의 과민성, 비협조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이영순, 1988).

김진경(1989)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자녀의 사회성 및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아가 안정성 영역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에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대체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특히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 대상은 주로 어머니들이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련된 연구가 더 많고 정서발달을 함께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부모 즉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는 각각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한 사립 유치원 원아와 그들의 부모(어머니와 아버지)였다. 유치원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중류층으로 파악되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140명과 부모 280명(어머니 140명, 아버지 140명)을 임의 표집하였으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시키고 최종 119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와 Edgerton(1985)이 개발한 Parental Modernity(PM) 척

도를 번안하여 수정한 것(연미희, 1994)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부모의 진보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진보적(민주적) 가치관은 현재와 미래지향을 강조하고, 반면에 전통적(권위주의적) 가치관은 과거지향을 강조한다고 본다.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권위주의적 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민주적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에서 2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했는데 첫번째 요인(권위주의적)은 .66이 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구분	빈도(%)
유아의 연령	3세	15(12.6)
	4세	44(37.0)
	5세	60(50.4)
유아의 성별	남아	63(52.9)
	여아	56(47.1)
유아의 출생순위	외동	37(31.1)
	첫째	49(41.2)
	둘째이하	33(27.7)
가족형태	핵 가족	106(89.1)
	확대가족	13(27.7)
어머니의 연령	25세 - 29세	9(7.6)
	30세 - 34세	76(63.9)
	35세 - 39세	31(26.1)
	40세이상	3(2.5)
아버지의 연령	25세 - 29세	2(1.7)
	30세 - 34세	50(42.0)
	35세 - 39세	54(45.4)
	40세이상	13(1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1.7)
	고졸	71(59.7)
	대졸	40(33.6)
	대학원이상	6(5.0)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0.8)
	고졸	48(40.3)
	대졸	60(50.4)
	대학원이상	10(8.4)

왔고, 두번째 요인(민주적)은 .60으로 나왔다.

2)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1978)에서 개발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은해와 이기숙(199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사회·정서발달은 6개 요인에 대해 5단계로 평정되었으며, 측정요인은 교사에의 의존성, 내적통제, 동료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이었다.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평정하는데 있어서는 일정 기간 관찰을 한 후 문항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9개로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했으며, 〈표 2〉와 같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부모용 질문지는 유아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부되었으며, 그 후 일주일내에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가족형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유아 및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 F 검증을 하였다. 사후검증으

〈표 2〉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척도 신뢰도

사회 정서적 발달 영역	문항수	Cronbach Alpha
교사에의 의존성	9	.81
내적 통제	9	.94
동료와의 상호작용	9	.76
학교에서의 안정감	9	.93
성취동기	9	.78
호기심	9	.93
전체	54	.92

로 Scheffé test를 하였다.

IV. 결 과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와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연령,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82$, $P<.05$). 즉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3세의 유아 집단과 5세의 유아 집단에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5세인 어머니들은 3세인 어머니들보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유아가 여아일 경우 보다 남아일 경우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05$, $P<.05$). 가족형태는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일 경우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36$, $P<.05$). 반면에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권위주의적 하위영역에서 유아의 연령 및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F=3.20$, $P<.05$)는 사후검증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F=5.39$, $P<.01$)는 사후검증에서 아버지의 교육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	구분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민주적	권위주의적	민주적	권위주의적
유아 연령	3세	21.20	20.7	21.40	20.67
	4세	21.86	22.9	20.80	23.34
	5세	21.13	23.6	21.50	23.47
	차이검증	F = 2.19	F = 3.82*	F = 1.43	F = 3.20*
	외동	21.51	23.05	21.43	22.73
	첫째	21.61	22.61	21.33	23.49
출생 순위	둘째이하	21.00	23.45	20.85	22.82
	차이검증	F = 1.20	F = .50	F = .73	F = .46
	남아	21.67	23.30	21.60	22.71
	여아	21.13	22.63	20.80	23.46
	차이검증	t = 1.63	t = .98	t = 2.05*	t = 1.02
	핵가족	21.55	22.92	21.39	23.12
가족형태	확대가족	20.31	23.54	19.92	22.62
	차이검증	t = 1.68	t = .56	t = 2.36*	t = .43
	25세 - 29세	21.33	22.50	20.50	16.50
	30세 - 34세	21.59	21.07	21.28	22.74
	35세 - 39세	20.90	21.30	21.17	23.46
	40세 이상	22.33	22.17	21.38	23.69
부모연령	차이검증	F = 1.32	F = .75	F = .12	F = 2.25
	중졸이하	22.00	21.56	24.00	28.00
	고졸	21.44	21.30	21.56	24.31
	대졸	21.33	21.06	20.78	22.57
	대학원 이상	21.50	20.00	22.00	19.60
	차이검증	F = .11	F = .48	F = 2.30	F = 5.39**

* P<.05 ** P<.01

수준이 고졸인 집단($mean=24.31$)보다 대학원이상인 집단($mean=19.60$)에서 덜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권위주의적 하위영역에서 유아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연령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와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 교사에의 의존성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성별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변인	구분	교사에의 의존성	내적 통제	동료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 동기	호기심
유아 연령	3세	24.20	28.73	28.13	30.27	27.00	29.60
	4세	24.82	30.75	30.05	31.32	29.36	28.52
	5세	25.87	30.98	32.58	34.25	30.43	27.93
출생 순위	차이검증	F = .83	F = 1.36	F = 6.34**	F = 4.00*	F = 2.94	F = .39
	외동	25.08	30.41	30.30	32.30	29.57	28.05
	첫째	25.76	30.67	31.16	33.37	29.20	28.33
	둘째 이하	24.76	30.76	31.85	32.03	30.24	28.76
성별	차이검증	F = .37	F = .05	F = .79	F = .51	F = .41	F = .10
	남아	26.13	28.84	31.29	33.52	29.35	28.65
	여아	24.30	32.61	30.86	31.70	29.89	28.05
가족형태	차이검증	t = 1.87	t = 4.72***	t = .45	t = 1.55	t = .58	t = .48
	핵가족	25.30	30.66	31.08	32.78	29.75	28.32
	확대가족	25.00	30.23	31.15	31.70	28.46	28.69
어머니의 연령	차이검증	t = .19	t = .30	t = .05	t = .57	t = .86	t = .19
	25세 - 29세	23.44	28.44	31.33	34.89	29.44	28.90
	30세 - 34세	25.18	30.84	30.71	32.30	29.33	28.32
	35세 - 39세	25.71	30.42	31.81	32.77	30.10	28.76
	40세 이상	28.33	33.33	32.33	34.00	32.00	27.90
어머니의 교육수준	차이검증	F = .75	F = 1.01	F = .30	F = .48	F = .40	F = .11
	중졸 이하	32.00	31.50	29.50	28.50	27.00	28.10
	고졸	37.00	30.72	31.66	33.32	29.68	29.41
	대학	34.00	30.25	30.25	31.58	29.78	29.50
아버지의 연령	대학원 이상	31.00	31.50	30.33	33.50	28.50	28.60
	차이검증	F = 1.29	F = .18	F = .74	F = .94	F = .29	F = .20
	25세 - 29세	18.50	29.50	31.00	36.50	34.00	30.00
	30세 - 34세	25.74	30.42	30.08	31.88	28.42	29.51
아버지의 교육수준	35세 - 39세	24.89	30.96	31.94	33.11	30.48	29.10
	40세 이상	26.08	30.08	31.38	33.23	29.85	29.78
	차이검증	F = 1.40	F = .21	F = 1.14	F = .60	F = 2.02	F = .19
	중졸 이하	33.00	36.00	26.00	27.00	27.00	28.00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24.85	30.00	32.01	33.94	30.13	30.10
	대학	25.70	30.82	30.60	31.75	29.30	30.30
	대학원 이상	24.90	29.50	29.90	32.60	29.20	29.90
	차이검증	F = 1.14	F = .65	F = 1.22	F = 1.29	F = .35	F = .25

* P<.05 ** P<.01 *** P<.001

에 있어서는 내적 통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4.72$, $P<.001$). 즉 남아보다 여아의 내적 통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의 연령에 따

른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34$, $P<.01$). 즉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평균점수가 3세는 28.13, 4세는 30.05, 5세이상은 32.58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만 3세와 만5세 유아 그리고 만4세와 만5세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학교에서의 안정감은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00$, $P<.05$).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에서의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도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취동기와 호기심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을 구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표 5〉에 의하면 어머니는 민주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에서 교사에의 의존성, 내적통제, 동료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에서는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호기심에 있어서는 -.22와 -.25의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교사에의 의존성, 내적통제, 동료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에 있어서 거의 무시할 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체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호기심의 하위영역에서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와 그 부모(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아울러 어머니와 아버지간의 차이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중류층 가정의 유아 119명과 그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질문지와 관찰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표 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상관계수

부모의 양육 태도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어머니의 양육 태도		아버지의 양육 태도	
	민주적	권위주의적	민주적	권위주의적
교사에의 의존성	-.01	-.01	.02	-.05
내적 통제	.06	-.07	.03	.04
동료와의 상호작용	-.07	.02	-.01	.08
학교에서의 안정감	-.07	.00	.10	.11
성취동기	-.11	-.05	.01	.02
호기심	-.22*	-.25*	.09	-.08

질문지를 이용하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유아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상관계수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은 양육태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령이 어린 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유롭게 하며 제재를 덜 하는데 비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더 많은 행동상의 제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남아일 경우와 핵가족형태에서 민주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출생순위 및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유아의 연령이 어린 3세보다 4, 5세 유아인 경우에 행동상의 제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행동상의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자율성의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부모의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유아가 어릴때보다 부모가 더 많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또한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자녀의 성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줌으로 양방적 관계에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이러한 양육태도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과 비교되는데 어머니의 경우 남녀평등에 입각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성별에 무관하게 양육하는데 비해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들과 딸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별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대가족보다 핵가족의 아버지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여서 핵가족이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유아의 내적 통제는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내적 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전통적인 성역할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적 통제의 차이는 남아보다 여아의 내적 통제가 높다는 방인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핵가족보다 학대가족의 유아들이 내적 통제가 높다는 선행연구(방인숙, 1993)의 결과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연령은 차이가 없었다. 이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널리 인식된 사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안정감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영순, 1988)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성취동기와 호기심은 유아연령, 출생순위,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호기심과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사에의 의존성, 내적 통제, 동료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는 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교사에의 의존성, 내적 통제, 동료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주적,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에서 동일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유아의 호기심이 민주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주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연구대상의 수 혹은 측정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충분한 연구대상을 확보하여 조사해보거나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이 유아의 호기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체로 유아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유아의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태도 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관련성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연령, 성별, 가족 형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고, 자녀가 남아인 경우와 핵가족 형태인 경우에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높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낮다.

둘째,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유아의 내적 통제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동료와의 상호작용 및 학교에서의 안정감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호기심과 낮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방법론적 측면에서 유아의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 혹은 유아와 아버지를 쌍으로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그 어머니 및 아버지를 쌍으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와 아울러 어머니와 아버지간의 차이도 함께 살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우선 표집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중류층의 유아와 그 부모를 쌍으로 국한하여 표집이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연구대상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관찰자를 담임교사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3의 훈련된 관찰자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양희(1994).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사회성, 안정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미(1989).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정숙(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진경(1989). 자녀가 지각한 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안정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방인숙(1993). 가족형태가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양연숙(1995).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 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염미희(1994). 한국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오시내(1991). 취학전 아동의 정서반응 및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이은해·이기숙(1992).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 청삼아동문제연구소.
- 12) 조복희(1996). 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13) 한인자(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Anderson, B.(1992). Effects of day-care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thirteen-year-old swedish school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857-866.
- 15) Baumrind, D.(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 239-276.
- 16) Belsky, J.(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85-903.
- 17) Berk,L.E.(1994). *Child Development*, (3rd.ed.,).
-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18) Clarke-Stewart, A. (1984). Day care: A new contex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Permutter(Ed.),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Erlbaum.
- 19) Cmic, K. A., Ragozin, A. S., Greenberg, M. T., Robinson, N. H., & Basham, R.B. (1983). Social interaction and developmental competence of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4, 1199-1210.
- 20) Crockenberg, s., & Litman, C.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930-953.
- 21) Easterbrooks, M.A., & Goldberg, W.A.(1985).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toddlers, mothers, and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74-783.
- 22) Hock, E., & DeMeis, D.E.(1990). Depression in mother of infants: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85-291.
- 23) Kochanska, G.(1990). Maternal beliefs as long-term prediction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61, 1934-1943.
- 24) Schaefer, E.,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E. Sie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